

중기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 사전준비부터 물류까지 통합 지원

‘고비즈코리아’ 수출 게이트 활용
내년 ‘물류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브랜드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구성

정부가 해외 수출 준비부터 물류 서비스까지 중소기업의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전용 수출 항공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물류 부담을 줄이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후 인천국제 공항에 있는 우정사업본부 국제물류센터에서 한성숙 장관이 온라인 수출 참여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맞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2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및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형 지원에 나선다. 동행축제,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글로벌 시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선별하고 ‘K-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략 품목이 쓸 수 있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기업들은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시장

조사 등 해외진출 사전 준비부터 플랫폼 입점,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물류 서비스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해외 바이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셀러가 직접 현지에서 전략 품

목의 판로 확대를 돕는 ‘K-혁신사절단’도 운영한다.

해외 오프라인 진출을 원하는 수출 기업의 사전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등을 돕는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 사업도 시작한다. 온라인 수출 제품화 사업, 기업과 유통사의 협력 프로젝트형 온라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플랫폼과 수출 기업 간 친화도도 높인다. 우수 제품의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를 지원하는 기존 플랫폼 ‘고비즈 코리아(GobizKOREA)’를 온라인 수출 통합 게이트로 탈바꿈한다. 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품·바이어를 매칭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

팁스(TIPS)나 예비유니콘 선정 기업 등 민간에서 상품성을 인정받는 국내 중소 유망 플랫폼을 찾아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해외 진출 정책 자금을 지급한

다. 수출 기업에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 마케팅·홍보비를 지원하고, 플랫폼사에는 수수료 우대, 교육·컨설팅 혜택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물류 및 통관 관련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는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 마련, 풀필먼트 제공 확대, 우체국 물류서비스 이용 시 최대 15~30% 할인 혜택 등이 포함된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중소기업 전용 수출 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도 오는 2026년 말 문을 연다.

중기부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모방 문제로부터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등과 ‘K-브랜드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 판매대금 보장보험을 출시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스마트공장 구축 中企 “매출·고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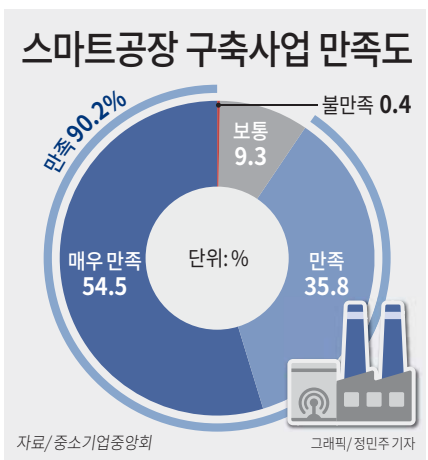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사업 의견 조사
기업 10곳 중 8곳 “구축 솔루션 만족”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들의 고용과 매출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포스코가 지원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대해선 참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만족했다. 구축 솔루션에 대해선 10곳 중 8곳이 만족을 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246개사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도입 성과, 필요한 정부 정책 등 의견을 조사해 1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후 고용 변화에 대해 응답기업의 33.3%가 ‘늘었다’고 밝혔다. ‘줄었다’는 0.4%에 그쳤다. 66.3%는 ‘변화 없다’고 답했다.

매출 변화에 대해선 47.6%가 ‘증가했



다’고 응답했다. 반면 ‘감소’는 2%, ‘변화 없음’은 50.4%였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0.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은 0.4%에 그쳤다. 구축 솔루션에 대한 만족도 역시 82.1%가 ‘만족’을, 0.8%는 ‘불만족’을 각각 표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 ▲작업환경 개선·산업안전 향상(48.8%) ▲생산성 증가(44.3%) ▲품질 향상·불량률 감소(43.1%) 순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기업들은 ‘지역·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확대’(61%),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 지원 확대’(37%), ‘기초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확대’(36.2%), ‘도입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 연계 지원 강화’(22%) 등의 정책적 지원을 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대기업의 제조혁신 노하우와 기술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공유, 확산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성과나 만족도에서 크게 차별화된다는”면서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체감하는 전문인력 부족, 자금 부담, 전문 공급기업 매칭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대기업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이 제조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HS효성첨단소재, 인도 신규법인 설립

3000만달러 출자… 타이어코드 생산

HS효성첨단소재가 인도 중서부에 위치한 자국내 GDP 1위인 마하라슈트라주에 신규법인 ‘HS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를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3000만달러(약 430억원)를 출자해 타이어코드 생산을 위한 인도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처를 다각화하기 위함이다.

인도는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프라 확대와 물류산업 발전으로 타이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어코드의 현지 조달 수요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인도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한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나그푸르 산업단지에 약 7만평 규모의 생산부지를 확보하고 2027년 타이어코드 공장을 완공하여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향후 에어백 원단 등 자사 핵심 제품군의 생산 라인 증설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여 년간 세계 1위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현재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베트남,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주요 고객사와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맞춤형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등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경량화를 위한 고강력 타이어코드와 타이어 성능 향상을 위한 고탄성 타이어코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고객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소상공인 10월 체감 BSI 79.1… 5년來 최고

“소비쿠폰 정책 효과 등 변동성 여전”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 지표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인지, 회복의 전조인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BSI는 79.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1월 소상공인 전망 BSI도 90.7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BSI란 현재 및 미래 상황에 대한 사업체의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한 경기 예측

지표다. 지수가 100 초과면 ‘호전’, 100 미만은 ‘악화’를 뜻한다.

소상공인 전망 BSI도 11월 들어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p 상승,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올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면서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 촉진행사 등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체감 BSI와 전망 BSI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상생페이백 같은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가 단발성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BSI가 100 언저리에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는데 각각 70대거나 90대 초반”이라며 “민생경제가 호전될 조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다. 아직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協,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지원

코넥스협회 업무협약 체결

이노비즈협회가 코넥스협회와 손잡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노비즈협회는 코넥스협회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코넥스협회는 이노비즈 기업에게 코넥스시장 제도와 기업 성장 전략,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노비즈협회는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회원을 적극 발굴·추천하고, 코넥스시장 상장 및 자본시장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협회는 이번 협약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회원이 안정적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